

# ‘영입 보류’ 백승호, 전북행

수원 입단 합의서 문제로 한때 보류 수원측 “영입 어렵다” 입장 확인 후 전북, 영입 재추진... “지원금 반환 당사자들끼리 풀어야 할 문제”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결국 논란의 중심에 선 백승호를 영입하기로 했다.

전북은 30일 “독일 분데스리가(2부) 다름슈타르트에서 뛰던 백승호를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백승호는 최근 K리그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원 삼성과 대립했다. 과거 백승호는 수원 유스팀 소속으로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유학할 때, 유학비 명목으로 수원 구단으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K리그 복귀시 수원 입단을 약속했다.

그러나 전북 입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뒤늦게 인지한 수원 구단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 측은 입단을 약속한 합의서 위반에 대한 사과와 지원금 외에 위자료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은 앞서 백승호가 K리그 복귀시 수원 입단을 약속한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영입을 추진했다.

이후 수원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내용을 통보받고 영입 계획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은 “선수등록 마감일이 이달 31일로 종료되고 수원 입단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에서 K리그 복귀를 희망하는 백승호가 무사히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입을 결정했다”며 “선수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프로 축구연맹의 확인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한달 넘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201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팀 입단 당시 지원받았던 유학비 반환 문제를 놓고 선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백승호를 영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U-23 축구대표팀 백승호가 지난해 11월 13일 (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에어 디펜스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수등록 마감일 직전까지 선수와 구단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과 이로 인해 장애가 있는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나서지 못하고 자칫 선수생명이 중단된다면 K리그에 좋지 않은 선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보냈다.

또 “수원이 최근 백승호 측에 보낸 문서에 ‘백승호 선수 영입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수원 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고 이후 영입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덧붙였다.

백승호 측과 수원 구단의 법적 공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북은 지원금 반환 문제에 대해선 “이는 추

후 백승호 측과 수원 이해당사자가 풀 문제”라고 했다.

백승호는 유소년 시절 명문 바르셀로나에서 뛰며 주목받았다. 연령대별 대표팀을 거쳤고, 국가대표팀, 올림픽대표팀에 이름을 올리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2017~2018시즌부터 두 시즌 동안 스페인 2부 지로나와 페랄라다에서 뛰다가 2019~2020시즌부터 다름슈타트로 옮겼다. 45경기에 출전해 3골 6도움을 기록했다.

전북은 “중원에서 더욱 안정된 미드필더 운영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뉴시스

# 허용·허훈 형제, 프로농구 인기투표 압도적 1·2위

KBL ‘포카리스웨트 인기상’ 중간집계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형제 선수 허용(DB)과 허훈(KT)이 인기상 투표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3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최고 인기 선수를 선정하는 ‘포카리스웨트 인기상’ 중간집계를 알렸다.

허용이 1만8071표로 1위,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수상자 허훈이 1만3581표로 2위에 자리했다.

지난 시즌에도 인기상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허용은 2년 연속 최고 인기 선수 자리를 기대하게 됐다. 허훈은 이번 시즌 올스타 팬 투표에서 1위에 올랐다.

둘은 최근 아버지 허재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함께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며 인기몰이 중이다.

창원 LG의 이관희(5382표), 서울 삼성의 김시래(3018표), 전주 KCC의 송교창(2796표)이 뒤를 잇고 있다.

인기상 투표는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 진



행된다. KBL 통합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뉴시스



최근 단양에서 열린 ‘제2회 단양소백산기 전국초등학교남·여배구대회’에서 전주 중산초가 최정상에 우승을 차지했다.

# 창단 첫 전국대회 정상 차지

전주 중산초 배구부, 단양소백산기 초등배구대회서

전주 중산초등학교 배구부가 창단 첫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30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단양에서 열린 ‘제2회 단양소백산기 전국초등학교남·여배구대회’에서 전주 중산초가 최정상에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우승은 창단 20년만에 첫 전국대회 우승이다.

조2위로 본선에 진출한 중산초는 8강전에서 마산 월포초를 2대1로 누르고 준결승에 올라 대구 삼덕초를 2대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 상대는 흥천남산초. 이 학교는 조별리그에서 중산초를 이기고 조1위로 올라

간 팀이었다.

예선에서 한 차례에 패한 팀이지만 중산초 선수들은 위축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기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특히 2세트에서는 17대24로 지고 있다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대회 우승으로 최우수선수상(오현아)과 공격상(김은주), 최우수지도자상(최애리)도 모두 중산초가 차지했다.

중산초 최애리 감독은 “평소 훈련량이 많은 데 선수들이 잘 따라줘 고맙다”며 “배구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학교에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KIA 클래식 제패 박인비, 세계랭킹 2위 도약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1승을 달성한 박인비가 세계랭킹 2위로 도약했다.

박인비는 30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8.25점을 얻어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2위에 자리했다.

박인비는 전날 끝난 KIA 클래식에서 최종합계 14언더와 27타로 2위 그룹을 5타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2월 호주여자오픈 이후 13개월 만이자 투어 통산 21번째 쾌거였다. 새 시즌 첫 대회부터 원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기량을 입증했다.

세계랭킹을 2위까지 끌어올린 박인비는 2020 도쿄올림픽 진출에도 바짝 다가갔다. 도쿄올림

픽에는 6월 말 기준 세계랭킹으로 결정된다. 15위 이내에 같은 국가 선수들이 몰려 있을 경우 국가당 최대 4명까지 나설 수 있다. 현재 박인비보다 앞선 이는 세계랭킹 1위 고진영(9.45점) 뿐이다.

김세영(7.61점)이 한 계단 떨어진 3위에 자리하면서 태국 남자들이 1~3위를 휩쓸었다. 9위 김효주(5.15점)를 포함해 톱10에 진입한 한국 선수는 총 4명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4명의 도약이 유력하다.

박성현(4.12점)과 이정은(3.84점)은 각각 12위와 13위를 기록했다.

/뉴시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